

어린이 영어 문화교육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Culture Education in Childhood English

이승은

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Seung-Eun Lee(selee@kwu.ac.kr)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문화 요소의 효율적 지도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초등영어 문화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교육은 다양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권 나라의 문화에 노출되거나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초등영어 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영어교사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신들 스스로 문화교육을 위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고 간주한다. 영어교사들 역시 문화요소에 대해 배우지 못했고 문화요소가 강조되지 않았었다. 둘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문화 관련된 적절한 교수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문화 요소는 영어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초등 영어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이다. 제 2언어 습득은 제 2문화 습득이기도 하다. 초등 영어 교과서에서 문화요소를 심도 있게 다루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교사가 양성 되었을 때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중심어 : | 문화교육 | 국제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efficient ways to teach cultural aspects in Korea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through analyzing many studies on elementary English culture education. In global era, English education must be performed based on understanding of other various cultures for authentic communication. However, Korean elementary students have difficulty to approach or to be exposed to the culture of English speaking countries. Elementary English culture education is neither well organized nor performed for some reasons.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English teachers are not confident with the culture and they consider themselves not having enough experiences and knowledge to teach. They were not taught cultural aspects and the cultural aspects were not emphasized. Second, there are not appropriate culture related teaching materials in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Therefore, necessary cultural aspects should be selected by English education experts and provided in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Those two books should be systematically connected. Elementary English teachers sh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other various cultures. Language is a part of culture and culture is a part of language. Acquiring the second language is acquiring its culture. The culture education for authentic communication is accomplished from managing cultural aspects in textbooks and cultivating English teachers with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target culture.

■ keyword : | Culture Education | International Language |

I. 서론

국제화 시대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 영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교육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다 문화 화자 간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 영어는 원어민간 (between native speakers) 의사소통 외에 비 원어민간 (between non-native speakers) 또는 비 원어민과 원어민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9]. 국제화시대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언어의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상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어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16].’ 즉, 초등영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타 문화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이는 언어교수 과정이 문화 간 소통이며, 언어의 이해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로 문화지도를 배제한 언어교육으로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어렵고 영어권 문화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문화교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문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문화교육에 관한 인식과 문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와 언어

Kramersch[27]는 언어는 문화적 실체를 나타내며 문화는 언어 사용 방법의 예시라고 한다. 문화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을 제시해 주며 환경과 주위 상황에 따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권의 가치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Hymes[25]에 의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능력의 범위를 언어 지식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규범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Fries[24]는 모든 언어 학습단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며 문화 내용을 이해하는 것 없이는 언어를 가르칠 수 없고,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형태와 그 가치를 모르고서는 진정한 언어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박원[17]은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언어와 문화는 얽혀 있다.
- (2) 언어와 문화는 친밀하게 서로 묶여 있다.
- (3) 언어는 문화에 깊이 내포되어 있다.
- (4) 문화와 그 언어는 분리할 수 없다.
- (5) 언어는 문화와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 (6) 언어는 문화의 상징적 길잡이다.
- (7)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 (8) 언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화의 차이가 커진다.
- (9)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는 언어의 일부이다.
- (10) 제 2언어 학습은 제 2문화 학습이다.

Robinson-Stuart와 Nocon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서 언어 학습자는 인식하고, 해석하고, 느끼고, 세계 속에 존재하고, ...사람이 어디에 있고, 남을 만나고 남과 관계 짓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으로서 문화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화를 한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고 작은 정신적, 물리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22].

이렇듯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표문화에 대한 학습은 언어 학습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습에서 인지적 목표인 언어의 기능과 정의적 목표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

언어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며 문화 체계와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교육을 동반 하여야 한다. 목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Seelye[31]는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7가지 목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10].

- (1)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들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2) 나이, 성별, 사회계층, 거주 장소 등의 사회적 변인과 언어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 (3) 초등학교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목표문화권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다.
- (4) 학생들이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학습할 때 그것들과 연결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5)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6) 목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 (7)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Levine, Baxter와 McNulty(1987)는 외국어 교육 관점에서 문화는 한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 믿음 그리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람들은 그들만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문화적 지식과 믿음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

한다는 것은 그들이 관습, 믿음, 태도 그리고 가치를 공유할 뿐 만 아니라 언어와 의사소통 형식까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 교육에서 문화이해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향상뿐 아니라 자국 문화 정체성 확립과 함께 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 국제화시대에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균형을 갖출 수 있게 한다.

III. 초등영어 문화 교육의 현황

1. 초등영어교사 문화교육 경험의 실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8년 초등영어 수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1][3][11][18]들은 초등영어 수업에서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영어 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부족, 문화지도 자료의 부족, 문화교육 인식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완기와 차경환[21]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영어 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문화의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영미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37.5%, 경험이 없는 교사가 44.6%였다. 초등영어 교사연수에서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43.3%였고, 46.3%는 교사 연수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중 86.3%가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영미문화의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0%정도의 교사가 교사용 지도서에 영미문화에 대한 소개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귀석과 이수경[2]은 광주광역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100명의 초등영어교사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에 문화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8%가 지도서나 교과서에 문화지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91%의 교사들이 문화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용규와 박주경[13]은 광주광역시 121명의 초등영어교사와 앞으로 영어를 지도할 교사들에게 실시한 조

사에서 37.8%의 응답자가 문화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62.2%의 응답자가 문화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육은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지도서의 문화자료 선정, 지도 방법이나 평가의 기준이 미비하여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초등영어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표문화에 대한 지식, 인식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초등영어 교사들의 문화교육 인식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 꼭 필요한 문화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교육환경, 교사변인, 학생변인 그리고 문화적 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 중 교사변인이 갖는 역할을 강조하였다[23]. Paige등은[30] 문화교육 시 교사의 문화에 대한 관점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목표문화에 관한 지식과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초등 영어 교사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귀석과 이수경[2]은 광주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100명의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 교사들의 문화교육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54%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언어적 지식만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66%의 교사들은 사전적 의미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사의 89%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단 17%의 교사만이 문화에 대한 교육은 영어를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박용규와 박주경[13]은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주관 하에 영어연수를 받고 있는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초등교사와 영어 지도를 희망하는 121명의 교사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초등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 중 97.5%의 교사들이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문화 간 이해를 통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2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26.0%를 차지한 언어로서의 영어 기능 향상과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고, 문화사대주의 탈피가 23.8%, 문화교육을 통한 올바른 문화가치관 형성이 22.9%였다. 응답자 중 단 3명만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완기와 차경환[21]은 울산과 경기 지역의 240명의 초등영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어의 의사소통 기술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영어 수업에서 언어의 기술적인 측면만 가르쳐도 된다.’라는 의견에 12.5%가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는 59.6%로 나타났다. 또한 ‘영·미 문화적 양상에 대한 이해는 주로 매체나 서적 등을 통해서 얻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에는 8.3%가 전적으로 반대하였고 60.0%가 대체로 반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84.2%의 교사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0.0%의 교사들이 사전적 의미만으로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문화교육을 언어교육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27.9%였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8%였다.

문화교육의 시기에 있어서도 김귀석과 이수경[2]의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문화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69%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이완기와 차경환[21]에서도 77.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반드시 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

세계화 시대의 영어 문화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생활 방법이나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capital C'와 'small c', 전자는 문학작품, 철학, 음악, 예술 등의 발달된 문명의 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자는 사람들의 관습, 태도, 가치관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습득에 필요한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어로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최근의 영어교육에 의해 'capital C' 문화에서 'small c' 측면의 내용에 치중되고 있다.

3.1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

2008년 개정 초등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우리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별첨하여 제시한 영어 교육 소재 부분의 문화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p443에서 재인용)

이러한 내용은 교과총괄 목표인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화교육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박용규와 박주경[13]은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1.3%가 우리문화와 영·미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였다. 33.6%가 영·미 문화와 세계 여러 나라 문화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응답하였고, 우리 문화와 세계 여러 나라 문화 10.1%, 영·미 문화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완기와 차경환[21]에서는 영·미인의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이 42.1%, 영어표현-단어표현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 35.1%, 영·미의 제도, 관행, 가치관, 태도 등이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capital C에 속하는 영·미인의 문화적 산물-역사, 지리, 문학, 예술 등은 7.3%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김진석[6]은 문화관련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문화관련 내용 설정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와 비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표 1] [표 2]와 같이 문화관련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가까운 주변의 친숙한 일상생활 관련 화제를 설정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6].

표 1. 명시적 내용의 문화관련 성취기준

학년	성취기준
초 3	인사하기와 같은 쉬운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초 5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기
초 6	간단한 생일카드나 감사카드 쓰기

표 2. 비 명시적 내용의 문화관련 성취기준

학년	성취기준
초3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 듣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챗트나 노래 듣고 이해하기
초4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식별하기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단순한 과업 수행하기
초5	·기초적인 전화 대화 이해하기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이해하기
초6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주요내용 이해하기 ·자신이나 가족들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쓰기

문화관련 내용에 관한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에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집필할 때 문화의 내용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이나 언어형식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문화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옥희[12]는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3학년 지도서에서는 영어의 언어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 42.8%이고 문화적 특징에 관한 것

은 57.2%로 나타났고, 4학년 지도서에는 언어적인 특징이 57%이고 문화적 특징에 관한 것이 43%, 5학년은 언어적 특징이 34.2% 문화적 특징이 65.8%, 6학년은 언어적 특징이 28.5% 문화적 특징이 62.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문화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또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우리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영미권 문화를 전달하는데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연구에서 이와 같은 단순한 문화지식 전달이 영미권 문화 정체성을 왜곡시키거나 한국문화 정체성과 뒤섞여 정체불명의 문화를 소개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위험한 예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질문이나 감정의 표현 - Juli의 엄마가 여학생에게 “Wow, you are strong. How old are you?”(4학년) - 영미권 문화에서 실례가 되는 표현을 영어 원어민 화자에 의해 보여주고 있다.

둘째, Ann이 엄마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사는 장면(5학년) - 영미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혼자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구매시키는 일이 없으나 이 또한 영어 원어민 화자에 의해 나타난다.

셋째, Anne과 나미가 서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물어 보는 장면(6학년) - 직업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을 영미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

위와 같이 문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내용은 타문화의 생활방법이나 생활방식에 대해 오해를 가져 올 수 있다. 교과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화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올바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3.2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방법

문화교육의 방법은 문화적 양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화의식과 문화적 차이점 등을 교사가 정확히 알고, 관련 언어 표현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와 비교하여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은 초등영어 수업시간에

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단계와 영어 숙달도 그리고 문화지도의 내용을 선정하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5][7][9][14][19]. 특히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제2언어 습득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할 때 언어자아가 생기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생기는 언어자아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에 의해 위협이나 억제감을 느끼게 하여 새로운 언어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이렇듯 언어 자아에 의해 타 문화에 대한 위협을 느껴 거부감이 갖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 소개하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영어 문화지도는 게임, 노래, 챗트, 뮤지컬 등 활동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게임이나 노래, 챗트 등은 교실 수업 외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문화의 이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다음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문화교육 방법들이다.

1) 문화방백(culture aside)

그 때 그 때 적절한 문화적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 문화와 차이나는 목표문화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수업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설명해 줌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계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문화동화(culture assimilator)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이해시켜 외국문화에 잘 적응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방법이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읽고 왜 그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생각해 본 후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찾게 되는데 각각의 해답에는 설명이 되어있어 문화 지식을 얻게 한다. 읽기교육과 같이 실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고 학습자가 틀린 답에 대한 이유를 읽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3) 노래

문화이해 증진을 위하여 Taylor[32]가 제안한 방법으로 단어나 문법실력이 향상되고, 지루한 문형연습에 변화를 준다. 듣기실력과 문화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초급단계를 지나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 문화퀴즈

학습할 문화교육 내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들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여 목표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들 스스로 찾아서 질문하고 학생들끼리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5) 환상체험

전신반응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을 사용하여 목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그림, 포스터, 지도, 달력, 잡지, 광고물 등의 실물이나 배경음악, 슬라이드, 음향효과 등을 사용하여 목표문화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목표문화의 여러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6) 비디오 시청

비디오 테이프는 목표문화의 실제적인 상황을 제공 하는 유용한 학습 자료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시청하면서 목표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표현, 몸짓, 얼굴 표정 등 언어외적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 시청 후 후속 질문과 역할극 등을 통해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7) 스토리 텔링

이야기는 목표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수업시간에 동화, 전설 등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목표문화 어린이들과의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 원어민 초청

원어민 화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거나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한다. 목표문화에 대하여 궁금

했던 점들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목표어 사용을 경험하고 학생들에게 목표문화의 체험이 전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청하는 원어민 화자는 학생들과 연령이 비슷하여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어 또래 집단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문화캡슐(culture capsule)

학생들 자신의 문화와 차이가 있는 목표문화를 교사가 간단히 영어로 설명하는 것으로 사진이나 광고지, 실 물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명이 끝나고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자 문화와 비교할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10) 교사의 강의

교사는 주제를 한 가지 정하여 설명을 하며 이때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IV.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나아갈 길

영어의 세계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영어가 지역적 영어이자(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세계 영어로서의 동등한 위치 갖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초등영어 교육은 영어를 사용하는 몇 국가의 모국어인 동시에 세계인이 사용하는 국제어임을 인정하는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어로서 영어를 교육할 때 다루어야 할 문화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주류 문화와 영어를 통하여 세계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문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정 의적 수준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한 문화의 구조와 개념들을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Nakamura(1998)는 목표어 문화의 개별적 정보를 이해하는 활동과 보편적 문화 요인의 이해 활동을 연계 하는 문화 지도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20]. 다음은 초등영어에서 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내용에 관한 필수적인 문화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문화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영어 교과서에 주제별로 영역을 정하여 문화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도 초등학교생에게 알맞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과서에 소개된 문화는 영·미 문화가 대부분이다. 오늘 날 영어는 세계의 언어이므로 특정한 나라의 문화만을 소개하는 것은 다원문화시대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의 문화를 소개하므로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국제 이해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초등영어 교사들은 문화교육을 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이상의 교사가 영어권 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이 비디오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것이라고 응답하고 29%만이 학교교육에서 얻어졌다고 응답한 연구결과[2]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문화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초등 영어 교육을 이끌어 갈 교사들의 문화 습득 능력과 책임감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언어의 기능과 함께 문화 체험 시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교재에 명시되어야 한다. 문화 내용의 선택과 배열을 교육과정 목표에 맞도록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이때 학생 연령과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교재의 그림과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에 문화적인 선입견이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재의 구성은 언어와 문화교육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체계화된 교육으로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섯째, 문화 교육과 평가는 문화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언어와 문화는 반드시 통합, 지도하고 학습자의 인지, 정의 수준을 바탕으로 과업수행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육에서 올바른 문화교육을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그 필요성과 우리나라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문화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통용되는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교환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국제어로서 영어사용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질서에 의한 의사소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과 비원어민 또는 비원어민간의 상호교류를 목표로 한다. 국제어로서 영어 사용은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영어 사용자 스스로 세계인이 되는 필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영어교육은 영어의 정체성을 외국어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국제어로서 받아들여서 영어교육의 목표를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문화지도의 중요성을 각인하여 문화교육을 부수적인 학습목표가 아닌 주요 목표로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고현숙, *초등학교 영어과 다문화 지도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 김귀석, 이수경,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언어학, 제2권, 제11호, pp.61-90, 2003.
- [3] 김용완, *영어교육의 문화적 주제들과 과정 설계*,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4] 김익환 “문화적 요소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제32호, pp.7-24, 2006.
- [5] 김종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한 비언어적 지도요소의 추출 및 효율적 지도 방안*,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 김진석, “초등영어교육과정에서의 문화 관련 성취기준 및 소재목록 설정 방안 연구”, 한국초등영어교육, 제21권, 제1호, pp.191-208, 2010.

- [7] 김진철, “초등영어 교육과정상의 문화요소지도에 관한 연구(1)”,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4집, pp.49-72, 2004.
- [8] 김진철, *초등영어교수법*, 서울: 학문사, 1998.
- [9] 김희중, *초등영어 학습에 있어서의 문화지도 방안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김혜련, “초등영어에 있어 문화지도”, *초등영어 교육*, 제2호, pp.210-228, 1996.
- [11] 노승희, *상호문화적인 교육을 위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연구*,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2] 박용희, “국제어로서의 영어 문화 교육”, *미국학 논집*, 제40권 제2호, 2008.
- [13] 박용규, 박주경, “초등영어 지도교사의 문화가치관과 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영어영문학* 21, 제24권, 제2호, pp.139-159, 2011.
- [14] 박상옥, *영어교수기법*, 서울: 신아사, 2000.
- [15] 박상옥, *교사를 위한 영어교수법*, 서울: 신아사, 2010.
- [16] 박약우, *초등영어교재연구*, 서울: 경문사, 2010.
- [17] 박원, “문화와 영어교육”, *영어교육연구*, 제20호, pp.1-21, 2000.
- [18] 양현정, *영어와 문화 통합교육을 위한 학습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7.
- [19] 이상용, *초등영어교육에서의 효율적 영미 문도지도*,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0] 이영희, “영어의 세계화와 초등 영어 문화 교육”, *한국초등교육*, 제16호, 제1권, pp.399-430, 2005.
- [21] 이완기, 차경환,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 연구”, *영어교육*, 제54호, 제1권, pp.327-372, 1999.
- [22] B.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5th Ed.), New York: Longman, 2006.
- [23] S. Cook, “College students’ perspectives on culture learning in required French course,”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NY., 1996.
- [24] Fries, Charles 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25] D. Hymes,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 [26] J. S. Kim, “Special issues on culture & education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7, No.3, 2009.
- [27] C. Kramsch, *Language and Cul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28] D. Lavine, J. Baxter, and P. McNulty, *The culture puzzle*. New York: Prentice Hall, 1987.
- [29] S. McKay,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30] R. M. Paige, H. Jorstad, F. Klein, and J. Colby, “Culture learning in language education: CARLA Working Paper” 15.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CARLA, 1999.
- [31] H. Seelye,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1984.
- [32] M. G. Taylor, “Songs as a linguistic and cultural resource in the intermediate Italian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Vol.6, pp.465-469, 1980.

저자 소개

이 승 은(Seung-Eun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영어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조기영어교육, 영어교수법